

재난 영화를 통해 본 소방관 이미지에 대한 융·복합적 고찰

이인섭¹, 김지희², 김윤정^{3*}

¹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²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³배재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view of Fire fighter Image through Disaster Movies

In-Seob Lee¹, Jee-Hee Kim², Yun-Jeong Kim^{3*}

¹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을 모델로 한 국내 및 국외 영화를 통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소방관 이미지와 영화 속에서 활약하는 소방관의 업무를 정리하고 소개하고자 함이다. 연구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9월 1일부터 7일까지 수행하였으며, 1903년부터 2016년까지 만들어진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찾은 소방관 관련 영화 목록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직접 관람했던 영화들에 대한 자료를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소방관 이미지는 화재진압, 수사관, 자기희생적인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영화를 통해 본 소방관 이미지를 융복합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소방관은 위험한 재난상황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며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구조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복지와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라”는 소방관 구호처럼 자기희생을 하는 소방관을 위한 복지와 안전 관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어** : 소방관, 재난 영화, 융·복합적 고찰, 이미지, 화재진압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ire fighter image through disaster mov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rom September 1 to 7, 2016, the movie search methods were carried out using movie title and key words via Wikipedia and various internet web sites from 1903 to 2016. The results included that the fire fighters had been considered as the precious person of volunteer activity regarding fire suppression, investigators, and self-sacrifice. Through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view of the disaster movie,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national based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and safety system for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CISM)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fire fighters and let the people know the sacrifice of the fire fighters including the motto, “First in and the last out”.

• **Key Words** : Disaster movie, Fire fighter, Fire suppression, Imag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view

*Corresponding Author : 김윤정 (yunkim@pcu.ac.kr)

Received January 2, 2017

Revised January 31,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의 고도화, 산업화에 따라 재난의 종류는 많아지고 있으며, 재난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하며 소방대원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여러 가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으며, 재난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긍지와 일념 하나로 사투를 벌이는 대한민국의 슈퍼 히어로라고 할 수 있다[1,2].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선 공무원 중 가장 선망의 직종이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다.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의 통제를 받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는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다. 소방관의 스트레스 원인은 현장 출동에서 맞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많이 기인한다. 직장 관련 요인은 불합리한 처우, 잦은 비번 동원, 낮은 사회적 평가, 출동 지역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다. 환경적 요인은 상황실의 진화벨 소리, 사이렌 소리, 구조 및 진압 환경, 출동 시 교통체증을 포함한다[3,4].

또한 소방 활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사고현장에서는 화재진압 현장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교육 및 대책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소방관을 모델로 한 영화와 미니시리즈가 많이 제작되었다. 자기희생을 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미니시리즈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소방관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3].

하지만 소방관은 위험한 구급현장의 구조과정에서 심각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관의 이미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영화를 통해 소방관의 업무를 파악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이미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관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점을 영화 속에서 소방관 이미지를 파악하여, 소방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융복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을 모델로 한 국내외 영화를 알아보고 영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영화 속에서 활약하는 소방관의 업무를 정리하고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방관의 업무과정에서 소방관이 겪게 되는 문제점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내용

영화에 대한 자료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찾은 소방관 관련 영화 목록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직접 관람했던 영화를 정리하였다[5]. 재난현장에서 소방관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영화에서 표현하였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DVD를 통한 영화관람, 인터넷을 통한 영화 소개, 관련 논문들을 충분히 고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소방관이 주인공이거나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를 하는 영화나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표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소방관의 다양한 업무를 정리하였다.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감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소방관이 등장하는 영화 내용

위키피디아의 소방관 영화는 <Table 1>과 같다. 1903년 미국 소방관의 삶(Life of an American life)은 무성영화로 소방차에서 큰 호스를 꺼내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담았다.

<Table 1> Fighters in the disaster movies

English title	Nation	Released year	Director	Synopsis and explanation
Life of an American Fireman	U. S. A.	1903	George Fleming, Edwin Porter	Short, silent film Films of Thomas Edison and Melies
The fireman	U. S. A.	1916	Charlie Chaplin	a fireman who always does everything wrong
Alice and the firefighter	U. S. A.	1926	Walt Disney	Disaster thriller
The fireman's ball	Czech	1967	Milos Forman	a satire on the East European Communist system
The towering inferno	U. S. A.	1974	John Guillermin	San Francisco Fire Department
Backdraft	U. S. A.	1991	Ron Howard	Chicago Fire Department
Lifeline	Hong Kong	1997	Johnnie To	Hong Kong action disaster drama
Fire boys	Japan	2006	Nishizawa Susumu	Animation movie
Frequency	U. S. A.	2000	Gregory Hoblit	highly localized electro-temporal spatial effects by unusual aurora activity
The Siren	Korea	2000	Kang, Lee	Passionate fireman
Libera me	Korea	2000	Yang	Korean action blockbuster film. a mentally-unbalanced arsonist and the firefighters who struggle to stop him.
The day after tomorrow	U. S. A.	2004	Roland Emmerich	sudden international storm which plunges the planet into a new Ice Age
Rescue me	U. S. A.	2004-2011	Denis Leary	New York City Firefighter, post 9/11
Ladder 49	U. S. A.	2004	Jay Russell	Baltimore firefighter Jack Morrison
Sad movie	Korea	2004	Kwon	Firefighter and girlfriend
252 Signal of life	Japan	2008	Nobuo Mizuta	a massive, catastrophic earthquake strikes Tokyo
Fireproof	U. S. A.	2008	Alex Kendrick	Christian drama film
An Alone tree	Korea	2010	Song	Passionate fireman
Love 911	Korea	2012	Jeong	Passionate fireman and woman doctor
Tower	Korea	2012	Kim	On Christmas Eve, at the luxurious Tower Sky twin tower building in central Seoul
Fahrenheit 451	United Kingdom	1966	François Truffaut	British Dystopian science fiction drama film
In old Chicago	U. S. A.	1937	Henry King	a fictionalized account about the Great Chicago Fire of 1871
Hell fighters	U. S. A.	1968	Andrew McLaglan	Houston-based oil-fire fighting outfit
Quarantine	U. S. A.	2008	John Erick Dowdle	American found-footage supernatural horror film
Red skies of Montana	U. S. A.	1952	Joseph M. Newman	Forest Service's smoke jumper unit
Smoke jumpers	U. S. A.	1996	Dick Lowry	An elite group of firefighters jumps from helicopters to extinguish fires
World trade center	U. S. A.	2006	Oliver Stone	September 11 attacks at the World Trade Center
San Andreas	U. S. A.	2015	Brad Peyton	San Andreas Fault devastating the San Francisco Bay area
Hours		2013	Eric Heisserer	Hurricane Katrina

1903년 영화 미국 소방관의 삶(Life of an American fireman)은 무성영화로 소방차에서 커다란 호스를 꺼내 화재진압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1967년 체코 영화 소방관의 무도회(The fireman's ball)은 오랜 세월 소방관으로 일했던 전임 의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후배 소방관들은 성대한 무도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방대의 전임의장은 암환자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하직원들이 그를 위해 무도회를 개최하는데, 무도회장 근처 주택에서 불이 나고, 무도회장 사람들은 모두 불구경을 위해 우르르 나간다. 그리도 돌아온 사람들은 테이블에 있던 경품이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급기야 즉석에서 미인대회를 열기로 한 소방관들은 급하게 후보자들을 모으지만 이는 더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일으킨다. 이 영화는 소방관을 통해 사회 풍자(satire)를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1974년 타워링(Towering inferno)은 135층으로 건설된 세계 최대의 고층 빌딩 "글라스 타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며, 설계보다 못한 규격 미달의 전기배선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다. 이 빌딩의 관리 책임자가 원인을 찾아내고 불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35층인 빌딩이어서 진화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때에 바람까지 불어 사람들의 대피가 매우 어려워진다. 가장 위층에서

<Table 2> Job description of the fire fighters in various movies

English title	Nation	Released year	Director	Job description
Life of an American Fireman	U. S. A.	1903	George Fleming, Edwin Porter	Traditional job including fire suppression and rescue of life
The towering inferno	U. S. A.	1974	John Guillermin	Traditional job including fire suppression and rescue of life, disaster prevention
Backdraft	U. S. A.	1991	Ron Howard	Traditional job including fire suppression, rescue of life, and fire investigation
Lifeline	Hong Kong	1997	Johnnie To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suppression
The Siren	Korea	2000	Kang, Lee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suppression
Rescue me	U. S. A.	2004-2011	Denis Leary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suppression
Ladder 49	U. S. A.	2004	Jay Russell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suppression
Love 911	Korea	2012	Jeong	Medical doctor takes the paramedic roles.
Tower	Korea	2012	Kim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suppression
Hell fighters	U. S. A.	1968	Andrew McLaglan	Suppression of oil-fire outbreak
Quarantine	U. S. A.	2008	John Erick Dowdle	Medical control of viral infection
Red skies of Montana	U. S. A.	1952	Joseph M. Newman	Suppression of forest fire. Forest Service's smoke jumper unit
Smoke jumpers	U. S. A.	1996	Dick Lowry	Helicopter flight paramedic. An elite group of firefighters jumps from helicopters to extinguish fires
World trade center	U. S. A.	2006	Oliver Stone	Disaster prevention, fire suppression, and evacuation
San Andreas	U. S. A.	2015	Brad Peyton	Disaster prevention, fire suppression, and evacuation
Hours		2013	Eric Heisserer	Disaster prevention, fire suppression, and evacuation

는 빌딩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사이에 81층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출동하지만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가스관이 연속 폭발하면서 81층 전체로 불길이 번진다. 거세어진 불길로 인해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그 여파로 계단이 내려앉고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지되면서, 연회장에 있던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갇히게 된다. 영화는 이후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과 연회장에 갇혀 있던 이들이 가까스로 탈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971년 12월 25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동의 '대연각호텔'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최악의 화재 사고가 있었다. 그 당시 전세계로 뉴스가 알려져 많은 충격을 주었으며, 대피로가 없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다. 호텔 화재 중에서는 단연 최대 사고였으며, 총 사망자 166명이었다.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 3년 뒤 미국에선 대형건물 화재를 다룬 영화 '타워링'이 개봉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138층짜리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고를 그린 영화이다.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시나리오에는 두 편의 소설 '타워'와 '글래스 인페르노'를 뒤섞어 각색한 것으로 두 소설 모두 1970년대 초 건축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화재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서 쓰인 것이라고 한다. 당대 최고 스타들이 총출동한 이 영화는 제작비의 10배에 가까운 극장수입을 올렸고 아직까지도 초고층건물 화재 사고를 다룬 대표적인 재난영화로 남아 있다.

2012년 12월 25일 개봉한 '타워'는 성탄절을 앞두고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에 일어난 화재를 그린다. 전국적으로 518만명을 모으는 성공을 거둔 영화였으며, 대연각 화재와 차별성을 둔 영화이다[6].

2000년 개봉했던 두 편의 영화, 사이렌(Siren)과 리베라메(Libera me) 모두 소방관이 등장한 영화였다. 사이렌은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늘 위험만을 쫓아다니는 소방관인 준우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 행동만이 불을 진압할 수 있다고 믿는 현이 주인공이다. 리베라메는 어린 나이에 방화범으로 12년간 수감됐던 남자가 출소하면서 교도소의 보일러실이 폭발한다. 이를 시작으로 원인 모를 거대한 화재가 시내 전역을 휩쓸고 도시는 불에 대

한 불안감으로 슬렁인다. 크리스마스이브, 대대적인 화재가 일어나고 소방대원과 범인의 사투가 벌어진다. 리베라에는 방화범이 어릴 때 학대받았던 상처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까지 다루고 있다[7,8,9].

2012년 개봉한 반창꼬(Love 911)는 주인공은 아내를 잃은 소방관과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의사가 업무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내용이다.

4. 고찰

<Table 1>의 영화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방관 업무를 다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1903년 소방관의 삶에서는 전통적인 소방관의 업무인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에서 커다란 호스를 꺼내고 있다. 1974년 타워링은 초고층건물의 화재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1991년 분노의 역류(Backdraft)에서도 전통적인 소방관의 업무인 화재진압 외에 화재의 원인 조사를 통해 방화범을 찾고자 하는 수사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1997년 홍콩 영화 Lifeline은 재난에 대비한 업무, 화재진압, 인명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 영화 싸이렌에서도 자기 업무에 매우 충실한 희생적인 소방관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반창꼬(Love 911)는 의사가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방영된 미니시리즈 <엔젤아이즈>에서는 의사가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그렸다. 최근 서울소방학교에서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며 2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각 소방서와 연결하여 지도의사를 하며 소방업무를 하고 있다. 미국 영화 타워링과 제목이 비슷한 한국 영화 타워는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재난 영화에서 늘 등장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람, 자신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온다[10,11]. 국토가 넓은 미국에서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산불을 진화하는 스모크 점퍼(smoke jumper) 소방관이 있다. 헬리콥터를 타고 뛰어내려 산불을 진화하는 영화 1952년 영화 몬태나의 붉은 하늘(Red skies in Montana)과 1996년 스모크 점퍼스(Smoke jumpers)가 있다. 2001년 911 테러를 배경으로 한 World Trade Center에서도 임명구조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5. 결론 및 제언

국내외적으로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화재, 테러에 의한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 등 많은 사고 속에서 항상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이 빛난다. 앞의 영화에서 보여준 소방관의 희생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이므로 소방관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면서 자신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7,12]. 따라서 국가는 이런 위기상황 스트레스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위기 중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13]. 처음 업무를 맡게 되는 소방관은 첫 현장출동에도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충격이 계속 남아 있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초임 소방관의 경우 세심한 배려와 상담이 더욱 중요하다[14,15].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영화를 통해 소방관에 대한 복지와 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 음주와 정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16]. 또한, 본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을 통한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둔다[17,18,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영화를 통해 본 소방관 이미지를 융복합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소방관은 위험한 재난상황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며 존경을 받음과 동시에, 구조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방관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소방관 이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E. J. Lee, J. H. Kim, "Cognitive behavior intervention for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in fire fight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2, pp. 13-18, 2015.
<https://doi.org/10.15207/JKCS.2015.6.2.013>
- [2] S. Y. Park, "A study on Korean disaster movie, The host (2006), Chaw (2009), Haeundae (2009)", Visual Culture, Vol. 20, pp. 99-118, 2012.
- [3] C. S. Lee, J. H. Kim, S. H. Bang, "Relation of Eating Speed and Metabolic syndrome in Fire fight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113-119, 2014.
<https://doi.org/10.15207/JKCS.2014.5.4.113>
- [4] S. J. Bae, "Images of the apocalypse in Roland Emmerich's disaster movie - focused on <Tomorrow> (2004) and <2012> (2009)", Contents Plus, Vol. 13, No. 1, pp. 5-21, 2015.
- [5] Wikipedia, www.wikipedia.org- as of June 27, 62016.
- [6] 한국일보, 2014년 12월 27일 기사.
www.hankookilbo.com as of June 27, 2016.
- [7] H. E. Ahn, H. S. Joo, "The symptom structure of PTSD in simple and complex trauma type group",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Vol. 30, No. 3, pp. 869-887, 2011.
- [8] G. S. Everly, J. T. Mitchell, "The debriefing controversy and crisis intervention : A review of lexical and substantive issues",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Vol. 2, No. 4, pp. 211-235, 2000.
- [9] G. S. Everly, R. B. Flannery, J. T. Mitchell,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A review of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5, No. 1, pp. 23-40, 2000. [https://doi.org/10.1016/S1359-1789\(98\)00026-3](https://doi.org/10.1016/S1359-1789(98)00026-3)
- [10] S. G. Roh, J. H. Kim, "Work related diseases in Korean fire fighter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1, No. 10, pp. 571-576, 2013.
- [11] C. T. Kim, "An analysis of emergency transport proportional popul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2, No. 12, pp. 449-456, 2014.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49>
- [12] D. M. Shin, E. J. Hong, G. R. Kim, J. H. Kim, T. Y. Moon, "Musculoskeletal diseases in 119 rescuer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1, No. 9, pp. 209-214, 2013.
- [13] J. H. Ku, "Globalization Development Plans of the Convergence Systems and Policies for Domestic Fir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2, pp. 85-91, 2016. <https://doi.org/10.15207/CS.2016.7.2.085>
- [14] J. I. Heo, J. M. Park,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milita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9, No. 3, pp.33-49, 2015. <https://doi.org/10.14408/KJEMS.2015.19.3.033>
- [15] J. M. Park, S. M. Kim, "Comparison of paramedic image and its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9, No. 3, pp. 33-49, 2015.
<https://doi.org/10.14408/KJEMS.2015.19.2.039>
- [16] E. K. Lee,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375-382,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1.375>
- [17] B. M. Bang, S. Y. Lee, J. O. Cheong,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05-213,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2.205>
- [18] E. K. Lee, J. H. Park,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i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5-24, 2016.
<https://doi.org/10.15207/JKCS.2016.7.3.015>
- [19] J. A. Han, M. J.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s on Anger,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87-98, 2016.
<https://doi.org/10.15207/JKCS.2016.7.3.087>

저자소개

이 인 섭(In-Seob Lee)

[정회원]



- 1998년 3월 ~ 현재 : 국민안전처
- 2015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응급구조학과 석사
과정 중

<관심분야> : 해양경비안전, 응급구조

김 지 희(Jee-Hee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
학 의학과 (의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1992년 11월 ~ 2006년 2월 : 질
병관리본부 연구관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응급구조, 보건교육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
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응급간호, 기본간호